

## 하용조 목사의 짧은 묵상

### 자유하는 자의 삶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체의 자녀, 육체의 생각이 계속 있으면  
그것들이 영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육체에 지고 맙니다.

나의 옛사람, 옛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간섭하며 희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자유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하용조